



14면

고창 수해 피해자에
목조주택 기부 '훈훈'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야 천변 2길 6번지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음 9월 3일) 제263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 재발령

전북도, 2인 이상 실내·집회 등 감염위험 실외 대상 내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이후 10만원 과태료 부과

전북도가 지역 내 지속적인 감염자 발생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지난 8월 19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정당한 행정명령을 재발령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발령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제2의2에서 제2의4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지자체가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도는 도민과 타지역 방문자가 실내에서 2인 이상 있는 경우와 집회, 공연 등 감염의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 경우 실내는 버스나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처분기간은 오는 17일 토요일 0시부터 별도해제 시 까지이다. 처분 위반 시에는 같은 법 제83조 2항과 4항, 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권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다. 도와 시군은 허가된 마스크로 실내와 지정된 실외에서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단속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오랫말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난 16일 도청 브리핑실에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크 미착용 단속에 대한 정당한 행정명령 재발령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 고대사적 위상·가야제국 실체 집중 조명

'전북가야 심포지움' 성료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 전북학연구원장이 '전북가야 심포지움'을 전북 연구원에서 지난 16일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전북가야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조명한 것이다.

현재의 장수와 남원 일대로 보이는 반파국과 상기문국이라는 국가 단위를 중심으로 전북가야의 실체를 탐구하고, 고고학 및 문헌적 방법을 교차해 검증했다. 객장근(군산대학교 교수)가 '삼국시대 봉화대 분포망과 반파국 비정', 이도환(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가 '가

야사 연구의 현황과 반파국', 전상학(전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이 '고고자료와 문헌으로 본 상기문국'을 발표했다. 또한 토론자로 최인선(순천대학교 교수), 서정석(공주대학교 교수), 신가영(연세대학교 강사) 등이 참석하며 이다문(원광대학교 박물관장)이 사회자로, 김주성(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하는 등 도내외를 망라한 전문가들이 이번 학술행사에 참석했다.

도 '해상풍력 밸류체인' 속도

협업체 출범... 12개 기업·기관 참여, 그린뉴딜 선도

전북을 한국판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해상풍력산업의 가치사슬 구축과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전북도는 해상풍력산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도내 기업육성과 관련,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전북 해상풍력산업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북도청 2층 세미나실에서 구성, 출범한 전북 해상풍력산업 협의회는 도내 기업, 기업 유치 대상기업, 지원기관 등 모두 12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원방인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서남권 해상풍력사업 추진 시 도내 기업의 하부구조물, 터워 등 물량 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하부구조물, 터워, 터빈 등 중앙물의 해상운송을 위한 중량물 부두 조성, 어장장 조성, 도로 등 인프라 구축 방안도 다룰 방침이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은 2.4GW 중 서남권 400MW를 포함해 발전사업 인·허가가 준비된 해역은 2022년에 착공하고 나머지는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착공해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2022년까지 150억원(국비 136, 지방비 등 114)을 투자해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대규모간지 통항안전설계), 전파영향평가협의(해상풍력 개발가능 입지선정) 등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해상풍력단지개발 유효영역을 확보,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추진한다. 터빈설치 가능 해역선정 등에는 풍황계측기 설치 및 문화재지표조사 등 해역 활용을 위한 인허가, 발전사업 허가를 추진하고 2021년까지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산업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도내 기업은 블레이드 제작업체인 휴먼컴포지트,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업체인 삼일C&S와 조선키 자재협동조합, 유지관리업체인 TS윈드가 도내 해상풍력산업의 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투자유치 대상기업은 터빈업체인 두산중공업과 유니스, 터워업체인 CS윈드, 하부구조물업체인 삼강M&T가 협의회에 참여했다. 지원기관으로는 재료연구소 풍력시험센터, 전북대 해상풍력연구소,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소, 전북테크노파크가 참여해 힘을 보태게 된다. 전북 해상풍력산업 협의회는 도내 해상풍력 관련 기업 육성, 기업 투자유치, 중앙물 부두 등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해상풍력관련 기업육성을 위해 풍력터빈, 블레이드, 터워, 하부구조물 등 해상풍력산업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기업투자 유치방안,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

정 등에는 풍황계측기 설치 및 문화재지표조사 등 해역 활용을 위한 인허가, 발전사업 허가를 추진하고 2021년까지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산업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2.4GW 서남권 해상풍력 건설에는 14조원의 민간자금이 투자돼 향후 10년간 일자리창출 9만개, 경제유발효과 23조원, 해상풍력 관련 30개 기업 육성유치와 탄소 발생 저감을 통한 환경보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상기자

muju 무주군 축! 전주매일 창간

LohasZone-Muju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무주반딧불

농·특산물들이 있습니다!

“해발 400~800m, 연 평균 11.3°C, 한 여름 평균 기온 24°C의 보물창고 남부지역 유일의 고랭지 무주가 키웠습니다! 무주사람들이 정성으로 일했습니다!”

무주반딧불사이버장터 www.mj1614.com

www.mj1614.com 063)322-0278 / 320-2770